

국 어

1.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월곶 : Weolgot ② 셋별 : saetbyeol
- ③ 집현전 : Jiphyeonjeon ④ 축석루 : Chokseongnu
- ⑤ 대관령 : Daegwallyeong

1. 답 ①

월곶(Weolgot)(×) → 월곶(Wolgot)(○).
이중모음 ‘ㅈ’은 ‘wo’로 표기한다. 또한 자음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표기한다.

2. 다음 중 외래어 표기로 적절한 것은?

- ① 케익 - cake ② 플래쉬 - flash ③ 아울렛 - outlet
- ④ 로브스터 - lobster ⑤ 하일라이트 - highlight

2. 답 ④

외래어 표기법 제2항에 따르면 ‘유성 파열음 [b], [d], [g]’는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랍스터’가 아닌 ‘로브스터’가 옳은 표기이다.

[해설]

- ① 케익(×) → 케이크(○), ② 플래쉬(×) → 플래시(○),
- ③ 아울렛(×) → 아웃렛(○), ⑤ 하일라이트(×) → 하이라이트(○)

3. 다음 글의 밑줄 친 한자어의 독음을 옳게 연결한 것은?

언어 변화는 언어 체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데, 그 유형은 대체로 음운 변화, 유추, 그리고 차용으로 분류된다.

- ① 體系 - 全般 - 類型 - 類推 - 借用
- ② 體系 - 全般 - 類型 - 類雛 - 差用
- ③ 體系 - 全般 - 類形 - 類推 - 借用
- ④ 體系 - 前般 - 類形 - 類推 - 差用
- ⑤ 體系 - 前般 - 類形 - 類雛 - 借用

3. 답 ①

체계(體系, 몸 체, 이을 계)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전반(全般, 온전할 전, 일반 반) : 어떤 일이나 부문에 대하여 그것에 관계되는 전체. 또는 통틀어서 모두.
유형(類型, 무리 유, 모형 형) :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
유추(類推, 무리 유, 밀 추) :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차용(借用, 빌릴 차, 쓸 용) :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

4. 외래어 표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래어표기는 우리 국어의 현용 28자모로 표기한다.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한글 1기호를 원칙으로 적는다.
- ③ 외래어표기의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준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4. 답 ①

외래어 표기법 1장 제1항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5. 다음 중 수사법이 다른 하나는?

-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② 황홀한 비애
- ③ 찬란한 슬픔의 봄 ④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 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5. 답 ④

④는 황소의 울음을 금빛이라고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의 표현방법(청각의 시각화)이다. 나머지는 모두 역설에 해당한다.

6.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긴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 ① 가는 길에 말을 바꾸어 탄다.
- ②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 ③ 그날 밤 비가 지독히 내렸다.
- ④ 멀리 떨어져서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 ⑤ 추운 겨울에는 군밤과 군고구마가 생각난다.

6. 답 ④

‘말’이 ‘언어(言語)’를 뜻하는 경우 긴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말’이 ‘馬’의 의미일 경우는 단음이며, 야간의 ‘밤’ 역시 단음이다. 장음은 처음절에서만 실현되므로 ②와 ⑤는 적절치 않다.

7. 다음 중 ‘보름’을 뜻하는 한자어는?

- ① 朔 ② 旬 ③ 晦 ④ 念 ⑤ 望

7. 답 ⑤

‘望(망)’은 ‘보름(15일)’을 의미한다.

[해설]

- ① 朔(초하루 삭) : 매달 음력 초하루.
- ② 旬(열흘 순) : 한 달을 셋으로 나눌 때 열흘 동안.
- ③ 晦(그믐 회) : 음력으로 그믐날.
- ④ 念(생각할 염. 스물 염) : 음력으로 20일.

8. 다음 중 고려시대 작품이 아닌 것은?

- ① 서경별곡 ② 상춘곡 ③ 쌍화점
- ④ 이상곡 ⑤ 만전춘별사

8. 답 ②

<상춘곡(賞春曲)>은 조선 성종(15C) 때의 문신 정극인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歌辭)이다. 나머지는 모두 고려속요이다. (‘이상곡’을 주의하자. 고려속요 중에서 유일하게 비둘기에 빗대어 정치를 풍자한 곡이다.)

9. 다음 속담의 뜻으로 옳바른 것은?

과방에 수수엿 장수

- ① 검소하고 소박하다.
- ② 추레하고 보잘것없다.
- ③ 기회를 놓쳐 별 볼 일 없다.
- ④ 풍파를 많이 겪어 마음이 굳세다.
- ⑤ 일이 끝난 뒤에도 쓸데없이 참견하다.

9. 답 ③

‘과방에 수수엿 장수’는 ‘기회를 놓쳐서 이제는 별 볼 일 없게 된 사람이나 그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과장(罷場)’에 수수엿 장수’도 같은 의미이다.

10. 다음 중 ‘설득’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청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말하기를 의미한다.

- ② 내 생각에 반대하는 경우 상대로 하여금 내 생각을 인정하게 한다.
- ③ 나와 청자의 생각이 같은 경우 더욱 확신을 가지도록 한다.
- ④ 청자가 생각하는 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 ⑤ 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답 ⑤

청자에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명(說明)’에 대한 서술이다.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학 연구의 방법은?

작품은 작가의 전 체험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작품은 작가의 체험이나 시대적 조건과 결부시켜 설명할 때 의미의 예술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 작가의 생애 내지 그 시대상을 작품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작품 외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작품 이해의 필수요건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방법은 문학 작품의 외부적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작품의 이해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① 역사주의 방법 ② 심리주의 방법 ③ 형식주의 방법
- ④ 신화주의 방법 ⑤ 구조주의 방법

11. 답 ①

‘역사주의 비평’은 작품과 작자와 사회, 역사, 시대 등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중시하는 비평 방식이다.

[해설]

- ② 심리주의 방법 : 작가의 창작 심리, 등장인물의 심리, 작자의 개인적 상징을 분석, 해명하여 그 속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려 하는 비평방식.
- ③ 형식주의 방법 (=⑤ 구조주의 방법) : 작품을 시대적 상황 등의 외적 요인들과 분리하여, 작품 자체의 내적 속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석 방식. 문학 작품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하나의 체계라고 상정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구조, 문체, 운율, 수사법 등 문학적 언어의 쓰임을 분석하는 것을 중시하는 분석비평.
- ④ 신화주의 방법 : 문학 작품에 드러난 신화소를 분석하고 신화의 원형을 파악하여 문학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문학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사고·행동 체계가 원시적 제의나 그와 관련된 신화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는 방식. 원형주의 방식이라 불리기도 함.

12. 다음 관용어가 의미하는 뜻으로 올바른 것은?

말소리를 입에 넣다.

- ① 상황에 따라 말을 조리 있게 잘하다.
- ② 상대방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아 무시하다.
- ③ 남의 비난하는 소리를 참고 견디다.
- ④ 상대방이 말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 ⑤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게 웅얼웅얼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

12. 답 ⑤

‘말소리를 입에 넣다’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도록 웅얼웅얼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이다.

13. 다음 중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고전주의가 갖는 엄격한 형식과 통제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 ② 대표적인 작가로는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 등이 있다.
- ③ 이상향의 세계를 동경하고 이국적인 정취를 표방한다.
- ④ 인간관에 있어 전능한 이성보다 자연적 감성을 중시한다.

- ⑤ 다른 사조에 비해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형식을 중요시한다.

13. 답 ②

‘낭만주의(浪漫主義)’는 고전주의 다음에 발생한 문예사조인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유럽에 전파된 사조이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괴테, 빅토르 위고, 워즈워스’ 등이 있다. ②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는 상징주의의 대표 작가이다.

14. 다음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주된 갈등은?

인텔리…… 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 장을 또는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천여 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뺨을 본 것은 이들 인텔리다.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 느니 그들은 결국 꼬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인텔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달아나오는 것이 99프로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텔리요, 무기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다.

-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중에서 -

- ① 개인의 내면적 갈등 ② 개인과 개인의 갈등
- ③ 개인과 사회의 갈등 ④ 개인과 자연의 갈등
- ⑤ 개인과 운명의 갈등

14. 답 ③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은 1930년대라는 식민지 시대의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레디메이드(ready-made)’란 기성품(既成品)을 의미하는 말로 팔리기를 기다리는 기성품처럼 직업을 기다리는 실업자를 ‘레디메이드 인생’의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 세계적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전문학교를 졸업하고도 실업자로 내몰린 조선 지식인들의 모습을 고등교육을 받은 롬펜, P의 모습으로 대변하고 있다.

※ 다음 작품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5 - 17]

(가) 님금과 백성(百姓)과 스이 하늘과 싸히로되.
내의 설운 일을 다 아로려 흐시거든
우린들 술진 미나리를 홈자 엇디 머그리.

(나) 형아 아이야 네 슬흘 만져 보아.
뉘손디 타 나관디 樣姿((양지)조차 ㄴ튼순다.
한 것 먹고 길러나 이셔 닻 모음을 먹디 마라.

(다) 어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흐여라.
디나간 휘(後)면 애롭다 엇디흐리.
평싱애 고터 못홀 일이 이뿐인가 흐노라.

15. 위 작품의 창작 의도로 옳은 것은?

- ①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 ② 무지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 ③ 한가로운 농촌의 일상을 알리기 위해
- ④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고 찬양하기 위해
- 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15. 답 ②

이 시조는 정철의 <훈민가(訓民歌)>인데, 주제는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의 실천을 권장함’이다. 조선 전기에 지어진 전체 16수의 연시조로 쉬우면서도 정감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강한 설득력을 보이고 있다. (가)는 <훈민가>의 두 번째 수로 임금과 백성 사이의 도리를 읊고 있고, (나) 세 번째 수로 형제간의 우애를, (다)는 네 번째 수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읊고 있다.

16. (나)의 밑줄 친 ‘마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려는 마음
- ② 부부 사이의 화목을 방해하려는 마음
- ③ 임금의 은혜에 어긋난 행동을 하려는 마음
- ④ 남녀 사이의 분별을 흐리는 행위를 하려는 마음
- ⑤ 형제간의 우애를 흠뜨리는 행위를 하려는 마음

16. 답 ⑤

(나)의 주제가 형제간의 우애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⑤를 뜻한다.

17. (다) 부분의 상황과 관련 있는 한자성어는?

- ① 舉案齊眉 ② 肝膽相照 ③ 麥秀之嘆
- ④ 塞翁之馬 ⑤ 風木之悲

17. 답 ⑤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풍목지비’와 관련이 있다. ‘풍목지비’와 같은 말로 ‘풍수지탄(風樹之嘆)’이 있다.

[해설]

- ① 거안제미(舉案齊眉) : 밥상을 눈썹과 가지런하도록 공손히 들어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을 이르는 말.
- ② 간담상조(肝膽相照) :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귄.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 인생의吉凶禍福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18. 다음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단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 ① <춘향전>의 한 대목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다.
- ② 화자는 작품의 제목과 ‘향단’이라는 시어로 볼 때 춘향으로 볼 수 있다.
- ③ 화자가 그네를 타는 행위는 현실을 초월하려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 ④ 화자는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여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지상적인 위치에서 하늘로 표상되는 동경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18. 답 ④

화자인 춘향이는 이상향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실을 ‘아름답지 않게’ 보는 것은 아니다.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꾀꼬리’는 서정적 화자가 좋아하는 현실의 사물들을 나타낸다.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 - 20]

접동 / 접동 / ㉠ 아우래비 접동

㉡ 진두강(津頭江)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 마을에 / 와서 읊니다.

옛날, 우리 나라 /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 오오 ㉢ 불설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는 ㉣ 오랍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읊아가며 슬피 읊니다.

19.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 시의 저자는 윤동주이다.
- ② 이 시의 창작연대는 1930년대이다.
- ③ 이 시는 사별한 임을 그리는 노래이다.
- ④ 이 시의 제재는 서북지방 접동새 설화이다.
- ⑤ 이 시가 나타내는 것은 계모에 대한 의붓딸의 원한이다.

19. 답 ④

김소월의 <접동새>는 서북 지방 접동새 설화에서 모티브를 끌어 왔다.

[해설]

① 김소월이다. ② 20년대 작품이다. ③ 임과 관계없으며, 혈육의 정을 노래했다. ⑤ 접동새와 누나를 동일시해서 남동생에 대한 누나의 정(情)을 드러낸 시이다. 부분적 이야기인 계모에 대한 원한을 주제로 볼 수 없다.

20. 다음 중 밑줄 친 ㉠~㉤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형상화한 것
- ② ㉡ : ‘강(江)’과 ‘가람’의 의미가 중첩된 것
- ③ ㉢ : ‘몹시 서러움’의 평안도 방언
- ④ ㉣ : 여자가 자기 남동생을 부르는 말
- ⑤ ㉤ :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20. 답 ①

‘아우래비’는 학자에 따라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홉명의 오래비’라는 뜻으로 보는 학설이 있고, ‘아우 오래비’로 해석하기도 하는 학설도 있다. ④의 ‘오랍동생’은 관서 지역에서 쓰는 방언으로 ‘여자의 남동생’을 의미한다.